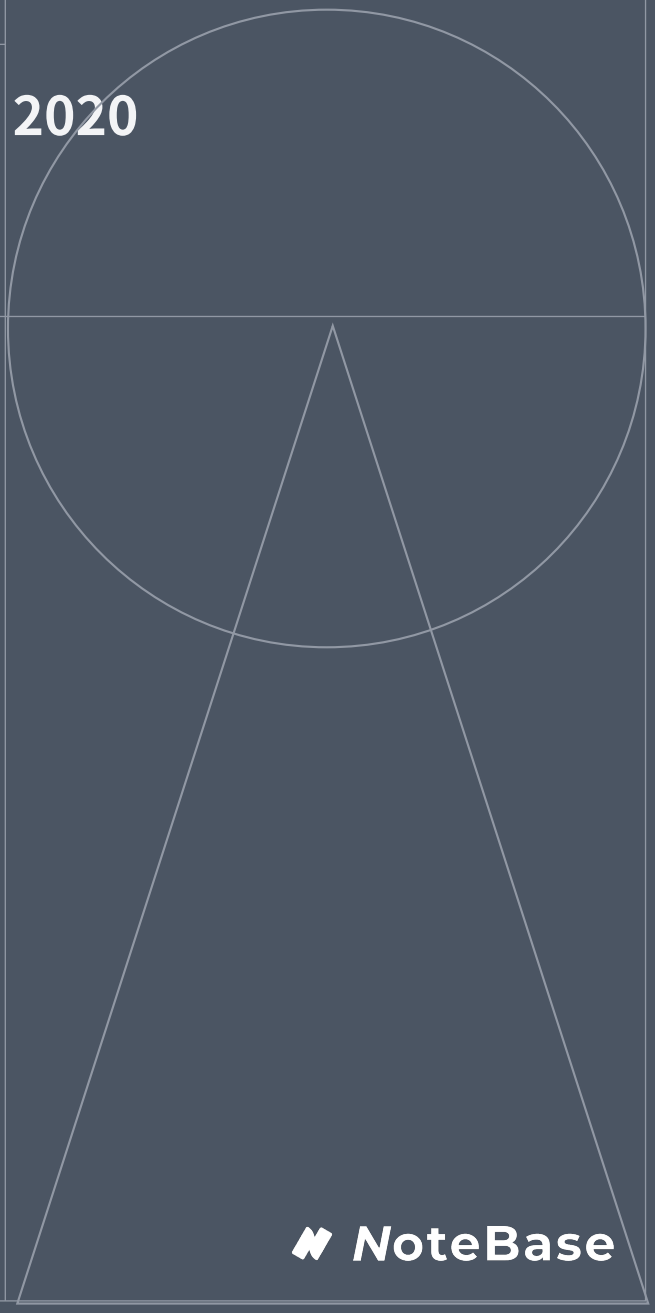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0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0

문 1. 안긴문장이 없는 것은?

① 나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고대한다.

② 착한 영호는 언제나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③ 해진이는 울산에 살고 초희는 광주에 산다.

④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일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해진이는 울산에 살고 초희는 광주에 산다’는 두 절이 ‘-고’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어느 절도 다른 절 속의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안긴문장이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안긴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절이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안긴문장의 주어는 문맥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두 절이 대등하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한 절이 다른 절에 안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이다. 여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전체가 **'고대한다'의 목적어**로 기능하므로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② '착한'은 '영호가 착하다'에서 주어 '영호가'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관형절이다. 뒤의 명사 '영호'를 꾸미는 관형어로 기능하므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주어가 생략되어도 안긴문장**이 될 수 있다.

③ '해진이는 울산에 살다'와 '초희는 광주에 산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다. 두 절은 각각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대등하게 연결**되며, 어느 절도 다른 절의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안긴문장이 없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 '내일 가족 여행을 가자고'는 함께 여행을 가자는 말의 내용을 전하는 인용절이다. 이 절이 '말씀하셨다'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①·②·④에는 각각 명사절·관형절·인용절이 안겨 있다. 안긴문장이 없는 것은 두 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③이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① 지금쯤 골아떨어졌겠지?

② 그 친구, 생각이 깊던데 책깨나 읽었겠어.

③ 갖은 곤욕과 모멸과 박대는 각오한 바이다.

④ 김 과장은 그러고 나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깊이 잠든다는 뜻의 말은 **'곯아떨어지다'**이다. 따라서 '골아떨어졌겠지'는 '곯아떨어졌겠지'로 고쳐 써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피곤하여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드는 것을 '곯아떨어지다'라고 한다. '골아떨어지다'는 잘못된 표기이므로, 밑줄 친 부분은 **'곯아떨어졌겠지'**로 고쳐야 한다.

② O: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책깨나 읽었겠어'는 책을 상당히 읽었을 것이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는다. 조사이므로 앞말 '책'에 붙여 쓴다.

③ O: '곤욕'은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을 뜻한다. 모멸과 박대를 각오한다는 문맥이므로 '곤욕'이 적절하다.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뜻한다.

④ O: '그러고 나서'는 동사 '그러다'에 '-고'가 붙고 보조 동사 '나다'가 이어진 구성이다. 이때 '-고 나다'는 **앞의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므로, 그렇게 한 뒤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는 뜻에 맞는다. 접속 부사 '그리고'를 쓴 '그리고 나서'와 구별한다.

NoteBase

문 3.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

②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③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④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그는'과 **'말을 하였다'**가 주어와 서술어로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말의 내용인 '내 생각이 옳지 않다'에서도 '내 생각이'와 '옳지 않다'의 관계가 자연스럽다.

선지별 해설

① X: 주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에는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 서술어가 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로 끝나면 주어 '점은'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없어 문장이 완결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② X: 주어의 중심어는 '일'인데, 서술어는 그것을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여 **일과 시간을 부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일의 성격을 서술하도록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웠다.'로 고친다.

③ X: '결정했다'는 판단 행위를 나타내므로 주어 '내 생각은'과 호응하지 않는다. 생각의 내용을 밝히는 문장으로 쓰려면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④ O: 전체 문장의 주어 '그는'과 서술어 '말을 하였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는 말한 내용을 나타내며, 그 안에서도 주어 **'내 생각이'**와 서술어 **'옳지 않다'**가 호응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말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므로 문장 성분 사이에 호응의 어긋남이 없다.

NoteBase

문 4. ㉠~㉣의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 오늘 오후에 팀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겠습니다.
㉢ 비상문이 열려져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 지난밤 검찰은 그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① ㉠: '기간'과 '동안'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공사하는 동안'으로 고쳐 쓴다.
② ㉡: '회의를 갖겠습니다'는 번역 투이므로 '회의하겠습니다'로 고쳐 쓴다.
③ ㉢: '열려져'는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열려'로 고쳐 쓴다.
④ ㉣: 동작의 대상에게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를 제시해야 하므로 '구속했다'는 '구속시켰다'로 고쳐 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구속하다'는 이미 목적어인 '그를'에 행위가 미치는 **타동사**이다. 대상에게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구속시켰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원문의 **'구속했다'를 그대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기간'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므로, '기간 동안'에는 **같은 의미가 겹친다**. '공사하는 동안'으로 고치면 의미를 유지하면서 중복을 줄일 수 있다.

② O: ㉡은 팀 전체가 모여 회의할 것임을 알리는 문장이다. '회의를 갖겠습니다'라는 번역 투 표현을 **'회의하겠습니다'**로 고치면 같은 내용을 우리말답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

③ O: ㉢의 '열려져'는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열리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열리다'만으로도 문이 열린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비상문이 열려 있어'로 고친다.

④ X: ㉣의 '구속하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며, '검찰은 그를 구속했다'는 검찰의 행위가 대상인 그에게 미친다는 뜻을 이미 나타낸다. **대상에게 행위가 미치는 것과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은 다르다**. 따라서 사동의 뜻을 더하려고 '구속시켰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며, '구속했다'를 그대로 쓴다.

NoteBase

문 5. ㉠~㉣을 사전에 올릴 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순서로 적절한 것은?

㉠ 곬
㉡ 규탄
㉢ 곳간
㉣ 광명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전에서는 **표기된 자모의 순서**로 단어를 배열한다. '곬'과 '곳간'은 받침 ㄼ이 ㅅ보다 앞서므로 '곬'이 먼저이고, 첫음절의 모음은 **ㅗ가 ㅘ보다, ㅘ가 ㅟ보다 앞선다**.

올바른 순서

㉠ → ㉢ → ㉣ → ㉡

㉠ 곬: 네 단어는 첫음절의 초성이 모두 ㄱ이므로 중성을 먼저 비교한다. 중성 ㅗ가 ㅘ와 ㅟ보다 앞서므로 '곬'과 '곳간'이 먼저 놓인다. 두 단어는 초성 ㄱ과 중성 ㅗ가 같으므로 종성을 비교하는데, **ㄼ이 ㅅ보다 앞서므로** '곬'이 맨 앞에 온다.

㉢ 곳간: 첫음절 '곳'의 종성 ㅅ이 '곬'의 ㄼ보다 뒤에 놓이므로 '곬' 다음에 온다. 중성 ㅗ는 '광명'의 ㅘ보다 앞서므로 '광명'보다는 먼저 놓인다. **첫음절에서 순서가 결정되므로** 둘째 음절 '간'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 광명: 첫음절 '광'의 중성 ㅘ는 ㅗ보다 뒤에, ㅟ보다 앞에 놓인다. 따라서 '곬'과 '곳간' 뒤이면서 '규탄' 앞에 온다.

㉡ 규탄: 첫음절 '규'의 중성 ㅟ는 다른 단어의 중성 ㅗ와 ㅘ보다 뒤에 놓이므로 마지막에 온다. 첫음절의 중성에서 이미 순서가 정해지므로 받침의 유무나 둘째 음절 '탄'은 이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말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넌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거냐?
◯ 강쇠네는 입이 재고 무슨 일에나 오지랖이 넓었지만, 무작정 덤벙거리고만 다니는 새줄랑이는 아니었다.

① 謁見
② 干涉
③ 參見
④ 干與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오지랖이 넓다'는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이다. '알현(謁見)'은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뵙는 것**을 뜻하므로, 남의 일에 끼어드는 태도와는 의미가 다르다.

공통 해설

'오지랖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첫 문장의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행동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까지 자세히 알려고 드는 모습이다. 둘째 문장의 '무슨 일에나'도 가리지 않고 여러 일에 끼어드는 태도를 나타낸다.

'간섭(干涉)'·'참견(參見)'·'간여(干與)'는 모두 어떤 일에 끼어드는 의미를 지닌다. 간섭은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이고, 참견은 자신과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에 끼어들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다. 간여 역시 어떤 일에 간섭하여 참여하는 것이므로, 세 말은 모두 이 문맥의 관용 표현과 의미가 가깝다.

'알현(謁見)'은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뵙는 것이다. 핵심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행위**에 있으므로,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한다는 '오지랖이 넓다'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해 온 일은 다섯 가지이다. 채권 매매, 칼 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이다. 이 일들만 해 온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다. 서커스단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꼽추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의 조수로 일하면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대 위에서 해야 할 연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우리들도 아버지를 성토했다. 아버지는 힘없이 물러섰다. 꼽추는 멍하니 앉아 우리를 보았다. 꼽추는 눈물이 핑 돌아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아주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의 꿈은 깨어졌다. 아버지는 무거운 부대를 메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갔다.

… (중략) …

어머니가 울었다. 어머니는 인쇄소 제본 공장에 나가 접지 일을 했다. 고무 골무를 끼고 인쇄물을 접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출발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영호와 영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마음이 차라리 편해졌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역, 공목, 약물, 해판의 과정을 거쳐 정판에서 일했다. 영호는 인쇄에서 일했다. 나는 우리가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호는 먼저 철공소 조수로 들어가 잔심부름을 했다. 가구 공장에서도 일했다. 그 공장에 가 일하는 영호를 보았다. 뽀얀 톱밥 먼지와 소음 속에 서 있는 작은 영호를 보고 나는 그만두라고 했다. 인쇄 공장의 소음도 무서운 것이었으나 그곳에는 톱밥 먼지가 없었다.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했다. 우리의 팔목은 공장 안에서 굵어 갔다. 영희는 그때 큰길가 슈퍼마켓 한쪽에 자리 잡은 빵집에서 일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공부를 한 자와 못 한 자로 너무나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미개한 사회였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나는 무슨 책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정판에서 식자로 올라간 다음에는 일을 하다 말고 원고를 읽는 버릇까지 생겼다. 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판을 들고 가 몇 벌씩 교정쇄를 내기도 했다. 영호와 영희는 나의 말을 잘 들었다. 내가 가져다준 교정쇄를 동생들은 열심히 읽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노력으로 잃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 고교에 입학했다.

NoteBase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① '우리 다섯 식구'는 생존을 위해 애쓰지만 윤택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② '아버지'는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하여, 평생 해 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③ '보이지 않는 보호'는 말 그대로의 보호라기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계층적 한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우리'는 자신들의 '구역'에서 벗어날 길을 '공부를 한 자'가 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여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아버지가 서커스단 일을 하려 하자 가족들은 이를 반대했다. 아버지는 **가족의 반대로 새로운 일을 포기**하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갔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리'는 자신들의 생활을 '전쟁'에 비유하고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말한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영호와 영희는 학교까지 그만둔다. 이는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임을 보여 준다.

② X: 아버지는 스스로 서커스단 일을 하려 했지만 어머니와 자녀들이 이를 성토하며 반대했다. 아버지는 **가족의 반대를 받아들여 서커스단 일을 포기**하고 무거운 부대를 메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갔다. 가족들의 바람을 받아들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설명은 가족의 뜻과 아버지의 행동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③ O: '보이지 않는 보호' 다음에는 '이질 집단'으로 취급받는다는 말과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깨달음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 표현은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 준다는 뜻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계층과 분리된 채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④ O: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엄격하게 나누는 사회에서 **공부를 계층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가 책과 원고를 읽고 동생들에게 교정쇄를 가져다주며,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 통신 고교에 입학하는 행동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8.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정의로 '수십 억 개의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이 전 세계의 컴퓨터를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라면, 사물 인터넷은 이제 전 세계의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본래 전원이 있고 칩이 있고, 이것이 통신 장치와 프로토콜을 갖게 되어 연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원이 있었던 전자 기기나 기계 등은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 새롭게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이 부착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이렇게 컴퓨터가 된 사물들이 그들 간에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를,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한 M2M(Machine to Machine)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설명한다. 또 혹자는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지능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이제는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이 사람과 손쉽게 닿는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

①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 등을 갖춘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물 인터넷으로 기능한다.

③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④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과 다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쓴이는 **'사람 수준의 지능'과 '인간의 개입 없음'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 견해를 모두 부정**한다.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사물을 컴퓨터로 만들어 서로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소통하게 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은 모두 컴퓨터로 기능하는 대상들을 연결하여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② O: 둘째 문단에서는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에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을 부착**하면 컴퓨터가 되고, 이렇게 된 사물들이 서로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선지는 사물이 통신 기능을 갖추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③ X: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사람이 개입하면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는 견해와 사물이 사람만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모두 그릇되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 수준의 지능이나 인간의 개입 배제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할 수 없다**. 글쓴이의 견해에 맞게 고치면,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로 기능하게 된 사물들이 서로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것이다.

④ O: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은 기존 인터넷이 컴퓨터들을 연결했다면 사물 인터넷은 **사물 각각을 컴퓨터로 만들어 연결**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원래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까지 연결 대상이 된다는 차이는 인정된다. 공통점을 더 중시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은 이러한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9. <보기>는 다음 한시에 대한 감상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白犬前行黃犬隨 흰둥이가 앞서고 누렁이는 따라가는데
野田草際塚纍纍 들밭머리 풀섶에는 무덤이 늘어서 있네
老翁祭罷田間道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밭 사이 길로 들어서자
日暮醉歸扶小兒 해 저물어 취해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하네
— 이달, 「제총요(祭塚謠)」 —

<보기>
이달(李達, 1561 ~ 1618)이 살았던 시기를 고려할 때, 시인은 임진왜란을 겪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 이 시는 해질 무렵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 이 시에서 무덤이 들밭머리에 늘어서 있다는 것은 전란을 겪은 마을에서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늙은이와 아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아이의 부모이자 할아버지의 자식에 해당하는 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일 것이다. ㉢ 할아버지가 취한 까닭도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 때문일 것이다. ㉣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장면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정서를 표출하는 선경후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후반부의 '제사를 끝내고'와 '아이가 부축하네'도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 표현이다. 슬픔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장면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므로**, 후반부에서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시에 나타난 상황을 설명한다. 3구의 '제사를 끝내고'는 제사를 마친 뒤임을, 4구의 '해 저물어 취해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하네'는 귀가하는 때와 두 인물의 행동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해 질 무렵 늙은이와 아이가 제사를 지낸 뒤 돌아오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② O: ㉡은 '들밭머리 풀섶에는 무덤이 늘어서 있네'를 시대적 배경과 연결한 감상이다. <보기>에서 제시한 **전란이라는 배경**을 고려하면, 여러 무덤이 늘어선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무덤이라는 시적 장면에 전란의 비극을 연결한 이해이다.

③ O: ㉢은 늙은이의 취한 모습에 담긴 정서를 추론한 감상이다. <보기>처럼 두 인물을 할아버지와 손자로 보고 아이의 부모이자 할아버지의 자식인 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로 해석하면, 늙은이의 취기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사와 귀가 장면을 바탕으로 추론한 정서이며, 시에서 그 감정을 직접 진술한 것은 아니다.

④ X: ㉣의 '후반부에서는 정서를 표출하는 선경후정의 형식'이라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선경후정은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뒤에서 정서를 드러내는 구성이다. 이 시의 전반부는 개들이 가는 모습과 늘어선 무덤을, 후반부는 제사를 마친 늙은이와 그를 부축하는 아이를 묘사한다. 즉, **후반부까지 장면과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슬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성**이다. 독자가 장면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반부를 직접적인 정서 표출로 볼 수는 없다.

NoteBase

문 10.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낭패를 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갈릴레이가 영원한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지동설을 주장했더라면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① ㉠ 逃戰

② ㉡ 持地

③ ㉢ 浸默

④ ㉣ 盟誓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맹세'는 굳게 다짐하고 약속한다는 뜻으로, **盟(맹세 맹)과 誓(맹세할 서)**를 써서 '盟誓'로 적는다. 지문의 '침묵을 맹세하다'는 앞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도전'은 기존의 학문 체계나 권위에 맞선다는 뜻이므로 **挑戰**으로 적는다. 挑는 '돋울 도', 戰은 '싸움 전'이다. 선지의 逃는 '달아날 도'이므로 挑로 고쳐야 한다.

② X: ㉡의 '지지'는 천동설에 찬동하여 그 편을 든다는 뜻이므로 **支持**로 적는다. 支는 '지탱할 지', 持는 '가질 지'이다. 선지의 持地에서 地는 '땅 지'이므로, '지지'의 뜻에 맞는 支持로 고쳐야 한다.

③ X: ㉢의 '침묵'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沈默**으로 적는다. 沈은 '잠길 침', 默은 '잠잠할 묵'이다. 浸도 '침'으로 읽지만, '침묵'에는 浸이 아니라 沈을 쓴다.

④ O: ㉣의 '맹세'는 굳게 다짐하고 약속한다는 뜻으로, **盟誓**로 적는다. 盟은 '맹세 맹', 誓는 '맹세할 서'이다. 지문에서는 갈릴레이가 더 이상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고 침묵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NoteBase

문 11. 다음 대화에서 '정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수: 요즘 짝꿍이랑 사이가 별로야.
정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상수: 그 애가 내 일에 자꾸 끼어들어. 사물함 정리부터 내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잖아.
정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짝꿍한테 그런 말을 해 보지 그랬어.
상수: 해 봤지. 하지만 그때뿐이야. 아마 나를 자기 동생처럼 여기나 봐.
정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작년의 내 짝꿍도 나한테 무척이나 심했거든. 자꾸 끼어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네 얘기를 들으니 그때가 다시 생각난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 보니 그게 관심이다 싶더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리고 짝꿍과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애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더라고.
상수: 너도 그랬구나. 나도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고, 짝꿍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 봐야겠어.

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용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②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방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있다.
④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민은 **짝꿍의 간섭으로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생각을 바꾸고 솔직하게 대화했을 때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상수가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정민은 상수와 갈등을 겪는 당사자가 아니며, 상대방을 용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상수와 짝꿍 사이의 갈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② O: 정민은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며 작년에 짝꿍의 간섭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들려준다. 이어 그 행동을 관심으로 받아들이자 마음이 편해졌고, 솔직히 대화하자 짝꿍도 잘못된 점을 고쳤다고 설명한다. 상수가 생각을 바꾸고 진솔하게 대화해 보겠다고 한 것은, 정민의 경험이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 준다.

③ X: 정민은 상수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상수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때의 대처 경험을 나누고 있다.

④ X: 정민이 상수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은 있지만, 상수의 말이 타당한지 근거를 따져 평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며 상황을 이해하고,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NoteBase

문 12. 다음에서 제시한 글의 전개 방식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는 전개 방식이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힘을 제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 방식이다.

①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은 해수면의 상승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변화시켜 엄청난 기후 변화를 유발하며, 게다가 섬나라나 저지대는 온통 물에 잠기게 된다.

② 이 사회의 경제는 모두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로섬(zero-sum)이란 어떤 수를 합해서 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③ 다음날도 찬호는 학교 담을 따라 돌았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 한 손에 한 짝씩 쥐고는 고양이 걸음으로 보초의 뒤를 빠져 팽이처럼 교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④ 벼랑 아래는 빽빽한 소나무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새털구름이 흩어진 하늘 아래 저 멀리 논과 밭, 강을 선물 세트처럼 끼고 들어앉은 소읍의 전경은 적막해 보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온실 효과에 따른 기온 상승이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기후 변화와 침수를 설명하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난다.

공통 해설

인과는 어떤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또는 그 현상으로 무엇이 초래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전개 방식이다. 두 사건이 차례로 제시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앞의 현상이 뒤의 현상을 일으키는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온실 효과에 관한 글은 기온 상승이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고, 해수면 상승이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바꾸어 기후 변화를 유발하며 섬나라나 저지대를 물에 잠기게 한다고 설명한다. 해수면 상승은 기온 상승의 결과이면서, 뒤에 이어지는 변화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여 현상을 설명하므로 인과의 예에 해당한다.

제로섬에 관한 글은 용어의 뜻을 밝히고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며, 찬호에 관한 글은 담을 돌고 고무신을 벗은 뒤 교문 안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다. 각각 개념의 뜻과 사례, 행동의 진행을 보여 줄 뿐 이를 일으킨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소읍에 관한 글에는 소나무 숲에 가려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적인 인과 관계가 있지만, **글 전체는 풍경의 모습을 그리는 데** 중심을 둔다. 따라서 이 글의 주된 전개 방식은 인과가 아니라 묘사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진행자 'A'의 대화 진행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지방 자치 단체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B: 네, 안녕하세요.
A: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B: 네, 약국이나 제약 회사가 의약품을 저희에게 기탁하면, 이 약품을 필요한 사회 복지 시설이나 국내외 의료 봉사 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입니다.
A: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B: 그렇습니다. 약국이나 제약 회사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탁하고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에서는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그렇군요.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은 없나요?
B: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요구하면 주는 방식이어서 전문 의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을 부탁할 수도 없고…….
A: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그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기부하실 때나 받으실 때나 모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② 상대방의 대답에서 모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③ 대화의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한다.

④ 상대방의 말을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말을 보충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는 B의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지 않는다**. 전문 의약품 제공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정비와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말을 보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A는 B의 설명을 들은 뒤 '그렇군요.'라고 반응한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음을 드러내는 반응**으로, B의 설명을 받아들이며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는 역할을 한다.

② X: A는 B의 답변 가운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찾아 지적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B가 전문 의약품 제공의 어려움을 말하자,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라고 말한다. 이는 **어려움에 관한 답변을 해결에 필요한 조건으로 풀어 보충하는 것**이다.

③ O: A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 이에 B는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기부하거나 지원받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한다. A는 이처럼 **사업 참여 방법을 알릴 수 있는 질문**을 하여 사업 홍보에 도움이 되는 대답을 이끌어 낸다.

④ O: B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주는 방식 때문에 전문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A는 이를 듣고 제도 정비와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B가 직접 말하지 않은 해결 방향을 대화의 맥락에서 이끌어 내어 **상대방의 말을 보충**한 것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왕의 아들 이목(璃目)은 항상 절 옆의 작은 연못에 있으면서 남몰래 보양(寶壤) 스님의 법화(法化)를 도왔다. 문득 어느 해에 가뭄이 들어 밭의 곡식이 타들어 가자 보양 스님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흡족히 여겼다. 하늘의 옥황상제가 장차 하늘의 뜻을 모르고 비를 내렸다 하여 이목을 죽이려 하였다. 이목이 보양 스님에게 위급함을 아뢰자 보양 스님이 이목을 침상 밑에 숨겨 주었다. 잠시 후에 옥황상제가 보낸 천사(天使)가 뜰에 이르러 이목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보양 스님이 뜰 앞의 배나무[梨木]를 가리키자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바람에 배나무가 꺾어졌는데 용이 쓰다듬자 곧 소생하였다(일설에는 보양 스님이 주문을 외워 살아났다고 한다). 그 나무가 근래에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 선법당(善法堂)과 식당에 두었다. 그 막대기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일연, 『삼국유사』 —

① 천사의 벼락을 맞은 배나무는 저절로 소생했다.

② 천사는 이목을 죽이려다 실수로 배나무에 벼락을 내렸다.

③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의 당대까지 전해졌다.

④ 제멋대로 비를 내린 보양 스님을 벌하려고 옥황상제가 천사를 보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배나무가 '근래'에 쓰러진 뒤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졌고, 그 막대기가 선법당과 식당에 놓여 있다고 서술한다. 이는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의 당대까지 전해졌음**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벼락을 맞아 꺾어진 배나무는 **용이 쓰다듬자 소생**하였다. 보양 스님이 주문을 외워 살아났다는 다른 이야기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저절로 살아난 것은 아니다.

② X: 이목을 침상 밑에 숨긴 보양 스님이 이목을 내놓으라는 천사에게 **대신 뜰 앞의 배나무를 가리켰다**. 천사가 그 나무에 벼락을 내린 것은 보양 스님이 배나무를 가리킨 데 따른 것으로, 이목을 공격하다가 실수로 배나무를 맞혔다는 내용이 아니다.

③ O: 글의 끝에서 배나무가 '근래에' 쓰러졌고, 어떤 이가 이를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 선법당과 식당에 두었다**고 하였다. 이어 그 막대기에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서술하므로,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가 글을 쓰던 때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X: 옥황상제가 죽이려 한 대상은 **비를 내린 이목**이다. 보양 스님은 이목에게 비를 내리게 했지만, 천사가 직접 내놓으라고 요구한 대상도 이목이므로 보양 스님을 벌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상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ㅓ’와 ‘ㅡ’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들은 ‘증표(證票)’나 ‘정표(情表)’를 구별하여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또 이들은 ‘ㅅ’과 ‘ㅆ’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살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많이 쪘다’고 말하든 ‘쌀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다’고 말하든 쉽게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한편 평안도 및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에서는 ‘ㅗ’와 ‘ㅓ’를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안도 사람들의 ‘ㅈ’ 발음은 다른 지역의 ‘ㄷ’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 이처럼 (㉠)

① 우리말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

② 우리말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발음법이 있다.

③ 우리말에는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

④ 자음보다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상 지역의 'ㅓ'와 'ㅡ', 일부 지역의 'ㅗ'와 'ㅓ' 사례는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뒤에는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종합하는 주장이 들어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역마다 소리가 다양하다는 말은 지역별 발음 차이를 넓게 표현하지만, 제시된 사례의 핵심인 **서로 다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담지 못한다. ㉠에는 단순히 소리가 다양하다는 말보다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주장이 적절하다.

② X: 지문에서 다룬 것은 **지역 방언의 발음 현상**이다. 경상 지역이나 평안도 등의 발음 사례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표준 발음법이 있다는 근거는 아니다. '다양한 표준 발음법'이 아니라 지역에 따른 소리의 구별 양상에 관한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경상 지역에서 'ㅓ'와 'ㅡ', 'ㅅ'과 'ㅆ'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와 평안도·전라도·경상도 일부에서 'ㅗ'와 'ㅓ'를 분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평안도의 'ㅈ' 발음이 다른 지역의 'ㄷ'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례도 지역에 따른 소리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말에는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④ X: 지문에는 모음인 'ㅓ'와 'ㅡ', 'ㅗ'와 'ㅓ'뿐 아니라 자음인 'ㅅ'과 'ㅆ', 'ㅈ'과 'ㄷ'에 관한 사례도 나온다. 그러나 자음이나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의 수를 비교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다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지역에 따라 소리의 구별 양상이 다르다는 정도로 종합해야 한다.

NoteBase

문 16.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글로벌 아이콘이 됐던 소위 스마트폰이 그 진화의 한계에 봉착한 듯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수위를 지켜 왔던 기업들의 호시절도 끝난 분위기다. (㉠)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후 글로벌 주도 산업은 무엇일까.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뜻하는 '팡(FANG)'이다.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에 눈뜬 기업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늘었으며 주가도 폭등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영속 불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① 온 국민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정보 기술 업계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보고 아전인수(我田引水)해야 할 때다.
④ 글로벌 위기의 내우외환(內憂外患)에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존 스마트폰 기업들의 호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주도 산업이 등장하는 흐름은 **업계의 우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권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의 '권불십년'은 이 흐름뿐 아니라 뒤의 '이들이라고 영속 불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도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절치부심'은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일 만큼 **몹시 분하게 여김**을 뜻하므로, 잘못을 돌아보는 '반성'의 의미로 쓸 수 없다. 지문에도 온 국민이 반성해야 할 잘못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보다 기존 기업들의 전성기가 끝나 가는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이 와야 한다.

② O: '권불십년'은 권세가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권세나 우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이른다. 여기서는 **정보 기술 업계의 지배적 지위도 영원하지 않음**을 비유한다. 앞의 '기업들의 호시절도 끝난 분위기'를 요약하면서, 뒤에서 새로운 주도 산업인 팡(FANG)을 소개하고 그들 역시 영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내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③ X: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 물을 끌어 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른다. 다른 나라 기업의 장점을 배우거나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지문은 다른 기업을 보고 무엇을 하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라 주도 기업과 산업이 바뀌는 흐름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이 문장은 논지를 벗어난다.

④ X: '내우외환'은 나라 안의 걱정과 나라 밖으로부터의 근심을 뜻한다. 지문이 다루는 것은 **정보 기술 업계의 경쟁 구도와 주도 산업의 변화**이며, 국가적 위기나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기보다 기업의 전성기와 우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통일성이 유지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희극의 발생 조건에 대하여 베르그송은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 등을 꼽았다. 즉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들 중 한 개인에게 그들의 모든 주의가 집중되도록 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사항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직접적인 장치는 대상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을 들 수 있다. 관객은 이러한 결함을 지닌 인물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우월성을 인식하고 즐거워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그 인물이 육체의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의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에나 우리의 웃음이 그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지니는 기분 좋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은 시사적이다.

① 베르그송에 의하면 희극은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② 베르그송에 의하면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는 희극 발생의 조건이다.

③ 한 개인의 신체적·성격적 결함은 집단의 웃음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장치이다.

④ 프로이트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정신 활동보다 육체 활동에 힘을 쓰는 상대가 희극적인 존재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베르그송은 관객이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설명은 감성을 억제한다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에서 베르그송은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면서 한 개인에게 주의를 집중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는 '관객이 감성을 억제하고 지성으로 한 개인을 바라보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지문 첫 문장에서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를 희극의 발생 조건으로 제시한다.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성을 행사하며 한 개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 세 요소는 웃음을 직접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웃음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③ O: 지문은 대상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을 **웃음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장치**로 든다. 관객은 그러한 결함이 있는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 우월성을 인식하고 즐거움을 느낀다.

④ O: 지문에 인용된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관객 자신과 비교하여** 육체의 활동에는 많은 힘을 쓰면서 정신의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인물이 희극적으로 보인다. 선지는 이러한 육체 활동과 정신 활동의 불균형을 설명한 것이다. 이때 웃음은 관객이 그 인물에 대해 느끼는 우월감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18. ㉠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①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②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③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소 끌고 산에 올랐는데/ 산 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④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에는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③에서도 아침부터 저물도록 힘겹게 일하는 남편을 걱정하며 그 고생을 안타까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의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과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는 임 씨의 노동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솜씨 있게 성실히 일하는데도 가난한 생활을 이어 가는 임 씨를 보며 느끼는 **연민**, 곧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비교 기준이다.

① '즐거운 지상의 잔치', '태양의 즐거운 울림',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아침을 맞아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듯한 **기쁨과 생명력**을 나타낸다. 타인의 고된 삶을 안타까워하는 ㉠과 정서가 다르다.

②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는 꽃의 홀로 떨어진 모습에서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 꽃을 좋아하여 산에서 사는 새의 모습도 제시되지만, 고생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산 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는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의 행방을 묻고 그 고생을 전하는 말에는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임 씨의 힘겨운 삶을 안타까워하는 ㉠과 정서가 가장 가깝다.

④ 눈을 감고 풀밭 길, 개울물, 백양 숲과 초집을 떠올리는 모습에는 그 풍경에 대한 **정겨움과 그리움**이 드러난다. 기억 속 풍경을 떠올리는 정서이므로,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과 구별된다.

네 시구를 비교하면, 타인의 고생에 마음을 기울이는 ③의 정서가 ㉠의 연민과 가장 유사하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의학적 연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농약과 같은 화학 물질이 몸에 들어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검토한 연구에서 생리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 호르몬이 그 물질과 어떤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자동차 충돌 사고를 인체 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할 때도 특정 연령대 남성의 몸이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여성의 신체 특성이나 다양한 연령대 남성의 신체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특정 연령대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대사율, 피부와 조직 두께 등을 감안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실 온도는 21℃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직장인에게 각각 선호하는 사무실 온도를 조사한 결과는 남성은 평균 22℃, 여성은 평균 25℃였다. 남성은 기존의 적정 실내 온도에 가까운 답을 했고, 여성은 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는 1960년대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 몸무게 70kg인 4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신체'를 가진 남성의 대사율은 여성이나 다른 연령대 남성들의 대사율과 다르고, 당연히 체내 열 생산의 양도 차이가 있다.

① 표준으로 삼은 대상이 나머지 대상의 특성까지 대표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의학적 연구를 하려면 하나의 표준을 정하기보다 가능한 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중에는 특정 표준 대상만을 연구한 결과인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의학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구한 대상을 살펴봐서 그대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신체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근무자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존의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가 조사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모든 공공 기관의 사무실 온도를 조정할 때 현재보다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이 글은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만든 표준을 모두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한다. 사무실 온도도 **근무자의 성별·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조정**해야 하므로, 모든 공공 기관의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여성 호르몬과 화학 물질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나 특정 연령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충돌 시뮬레이션은 연구 대상 밖의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학적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대가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치우친 연구의 한계를 줄이는 방안이다.

② O: 사무실 적정 온도로 알려진 21°C는 1960년대 몸무게 70kg인 4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된 자료에 바탕을 둔다. 이처럼 특정 대상을 연구해 얻은 지식은 다른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활용하기 전에 **연구 대상과 적용 대상의 신체적 특성이 맞는지** 살펴야 한다.

③ O: 마지막 문단은 표준으로 삼은 남성과 여성 또는 다른 연령대 남성 사이에 대사율과 체내 열 생산량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신체 조건의 차이는 적절한 사무실 온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므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근무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④ X: 남성의 평균 선호 온도 22°C와 여성의 평균 선호 온도 25°C가 기존 기준인 21°C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공 기관의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1°C는 특정 신체를 기준으로 산출된 적정 온도이며, 글에는 각 공공 기관의 현재 설정 온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글의 핵심은 집단별 신체 조건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인상보다 **각 기관 근무자의 성별·연령대 등 신체 조건을 고려한 온도 조정**이 바람직하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연극에서의 관객의 공감’에 대해 강연한 일이 있다. 나는 관객이 공감하는 것을 직접 보여 주려고 시도했다. 먼저 나는 자원자가 있으면 나와서 배우처럼 읽어 주기를 청했다. 그리고 청중에게는 연극의 관객이 되어 들어 달라고 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자원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그것을 훑어볼 때 청중들은 어수선했다. 그런데 자원자의 입에서 떨어진 첫 대사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아우슈비츠에 관한 적나라한 증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청중들은 완전히 압도되었다. 자원자는 청중들의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서 낭독을 계속했다. 자원자의 낭독은 세련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관객들의 열렬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과거 역사가 현재의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공감되었다.
이것이 끝나고 이번에는 강연장에 함께 갔던 전문 배우에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에서 발췌한 대사를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본은 400년 전 아젱쿠르 전투(백년 전쟁 당시 벌어졌던 영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전투)에서 처참하게 사망한 자들의 명단과 그 숫자를 나열한 것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임을 알아보자 품위 있고 고풍스럽게 큰 목소리로 낭독했다. 그는 유려한 어조로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청중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갈수록 청중들은 낭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들에게 아젱쿠르 전투는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분리된 것 같아 보였다. 앞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① 배우의 연기력이 관객의 공감을 좌우한다.
②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인 소재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
③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항상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다고 해서 관객의 공감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인 '헨리 5세'를 전문 배우가 유려하게 낭독했지만 청중은 공감하지 않았다. 이는 **고전의 훌륭함이 관객의 공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원자는 세련되거나 능숙하게 낭독하지 못했지만 관객의 열렬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반면 전문 배우는 유려한 어조로 낭독했는데도 공감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연기력만으로 관객의 공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X: 아우슈비츠에 관한 증언과 아젱쿠르 전투의 전사자 명단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다룬다. 그러나 앞의 낭독에는 청중이 공감했고 뒤의 낭독에는 무관심했다. 따라서 **비극적인 소재 자체가 공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③ O: 전문 배우가 낭독한 '헨리 5세'는 글에서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으로 제시된다. 그런데도 청중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아젱쿠르 전투를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례는 **훌륭한 고전이라도 청중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④ X: 글은 현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아우슈비츠의 역사가 관객에게 생생하게 공감된 경우와, 400년 전 아젱쿠르 전투가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분리된 경우를 대비한다. 이러한 대비는 현재와 가까운 역사가 관객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와 **공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해도 공감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